

시경(寫經)으로 만난 부처님 (하)

예수해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건설사 공사 주 담당으로 일하면서 부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사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지만, 여전히 나는 불교 초심자였다. 불교를 좀 더 알고 싶다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즈음 회사 근처에 있는 영화사라는 절을 알게 됐다. 4년 전부터 다니게 된 영화사는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그윽한 산사의 풍취를 간직한 고찰이라 내 마음의 안식처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회사와 가까워 자주 사찰을 찾았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올해 봄, 영화사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 바로 나에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인연을 맺어 주기 위해 영화사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쁜 마음으로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사실 사경을 하고 불교 경전을 조금씩 읽어보긴 했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진리로 향하는 길은 너무도 많았고 그 중착점도 각기 달라보였다. 참선과 위빠사나, 염불, 사경 등 수많은 수행법과 또 셀 수도 없이 많은 불교 경전이 말하는 깨달음이나 진리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라는 큰 울타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한 후 "이왕 공부하기로 한 것, 제대로 한 번 해 보자"는 생각에 제일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었는지 열 필경에 학생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사실 절에 다니면서도 신도회나 거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아 사찰이나 불교대학의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학생회장

이란 중책을 맡기가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니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학생회장을 맡게 됐고,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내가 그동안 절에 가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불교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스님과 전담 강사님의 대화를 통해 머리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교리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지명된 교수님과 덕망 높은 스님으로부터 사찰예절을 배우고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 근본불교, 선학개론, 중국 및 한국불교사, 업 사상 등의 기초 학습과정을 수강하게 됐다. 지도교수와 스님들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말을 풀어써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가르쳐 주셨다.

특히 불교근본교리를 지도하시는 풍국대 조용길 교수님의 강의는 경쾌한 유머와 다양한 비유법으로 진행된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업 사상에 대한 설명은 초심자인 내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가슴을 저미는 감동을 받기도 했다.

물론 불교대학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일부본질이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불교대학의 목적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처음엔 경전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말만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의 구성과 내용,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게 되면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경전을 공부할 수 있었다.

지난 학기말에 김제 금산사에서 단체 템플스테이를 했다. 생애 처음 하는 경험이었지만 발우공양과 참선시간 그리고 다도시간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템플스테이 기간동안 경험한 많은 프로그램들 보다 더 내 마음을 울린 것은 불교대학 동기들의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동기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나 역시 남

간명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자세히 마음 보는 절차가 있건만, 무명에 덮이고 아집을 벗어나지 못함을 꾸짖는 듯한 한 소절 한 소절을 마음에 담아 본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 영화사 거사회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화엄경>을 배우고 있다. 이전에 <화엄경>을 일독한 바 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 글자만 읽었을 뿐이었다. 이번 학습을 통하여 장엄한 화엄의 세계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었기에 회일이 작지 않다는 점을 소개하고 싶다.

내가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약 1년 전부터 발심을 했다.

불교대학 입학 후 학생회장 중책 맡아 동기들과 봉사다니며 배려의 삶 배워 아내 발심, 화목...부처님 가피에 감사

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나 후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죽을 때까지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나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마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으로 공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여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고, 사경을 하면서 글씨에 마음을 두고 독경을 하면서 외우는데 더 마음이 있지 않으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 밖에 부처 없고 부처 밖에 마음 없다"는 조사 말씀 새겨 보기 위해 경허 스님의 <선문촬요>를 다시 펼쳐본다.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가 절에 나가기 시작했고 <화엄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의 신심은 날로 높아져서 백일 천도재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니는 모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아내가 절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의 대화도 한결 부드러워졌을 뿐 아니라 서로가 절에서 배운 것을 묻고 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의논하게 된 것이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내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때 까지 우리 부부가 함께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고 다짐한다. 성불하십시오.(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포 담이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김순보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살의 끝에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회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30년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성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무)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문의: 050-5244-0108

나는 누구인가?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밀양

‘마음’을 알고 ‘선’을 한다
유식과 선으로 참나 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끌어 간다
對自에서 卽自로... 그 완전한 숨-까지

●구입·문의: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총판: 02)3672-7181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없습니다.

스님? 세상에 제일 고분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서는 보살입니다. 대전에는 사람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했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닦아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약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아가지고 뿔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것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려, 잇몸농종, 천운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02)2271-1441 농협: 360-12-046446 최능우